

# 성균관대 '한국학 랩'... 건국대 '리빙 랩' 전공·국경 넘어 '글로벌 교류'

사회적 이슈 연구하고 해법 모색  
글로벌 산학 연계로 인재 양성도

대학들의 캠퍼스 담장을 허물고 글로벌 교류에 본격 나서고 있다. 학과나 전공의 벽을 넘어 나라밖 청년들과 함께 인류가 직면한 공통 주제를 놓고 해법을 모색하는가 하면, 미래 글로벌 한국학 학자 배출을 위한 노력도 진행된다.

성균관대는 오는 26일까지 2주간 미래 한국학 학자를 꿈꾸는 160여명의 학생들이 합숙하는 '한국학 합숙 프로그램(이하 한국학 랩)'을 진행한다.

한국학 랩은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과 국어국문학과 등 한국학 유관 학과가 주관하는 국제적인 학문·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올해 첫 시행이다. 전세계에서 온 한국학 전공 학생 166명과 인솔 교수진 15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각 수준에 맞는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을 듣고 성균관대의 한국학 교수진과 세계 각지에서 활약 중인 한국학 교수들의 특강을 듣는다. 수준별 7개의 한국어 집중과정과 각 지역의 한국학 핵심 의제를 담은 약 20개의 한국학 강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어학 능력은 물론 한국학을 보는 넓은 시야를 내장한 미래 한국학 학자들을 키운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한국학 랩에는 미주와 서유럽, 중국, 일본, 타이완 뿐 아니라 한국학 교류가 많지 않은 동유럽과 동남아 지역 학생도 대거 참여한다.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연방,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터키 등에서 온 30여 명의 학생들은 이번 한국 방문이 처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한국학 인재들을 공동으로 양성하자는 취지를 담아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프로그램 기간 중 성균관대 연구실에서 어학과 연구 관련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전공과 관련한 과제를 수행한다. 또 참가 학생의 한국문화나 한국사회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문화 체험 등 수준별 집중적 한국어 수업도 제공한다.



건국대 글로벌 산학연계 학술프로그램인 '리빙랩' 프로젝트에 참가한 네덜란드 폰티스공대 학생들이 지난 8일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에서 캠퍼스를 둘러보고 있다. /건국대학교

**성균관대 '미래 한국학 학자' 육성  
세계 학생 166명 초청, 2주간 합숙**

**건국대 네덜란드 대학생과 리빙랩  
실무경험 토대로 취업률 상승 기대**

성균관대는 이번 프로그램 성과를 검토해 정례화할 방침이다.

건국대는 이번 동계 방학 중 재학생과 네덜란드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산학연계 학술프로그램인 '리빙랩' 프로젝트를 지난 1일 건국대 캠퍼스 투어를 시작으로 진행 중이다. 리빙랩 프로젝트는 양국 대학생들이 사회적 이슈를 함께 연구하면서 두 나라 기관·기업들과 협업해 해법을 찾는 글로벌 산학연계 학술 프로그램이다.

네덜란드 교육기관에서 학제로 도입되기도 한 리빙랩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실무경험을 늘려 취업률 상승과 창업지원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건국대는 지난 2017년 네덜란드교육진흥원, 네덜란드 4개 대학과 공동연구 및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 리빙랩 프로젝트 주제는 '스마트 리빙(Smart Living)'으로, 컴퓨팅 기반 ICT를 활용해 건강하고 지혜롭게 생활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네덜란드

폰티스공대 학생들과 건국대 학생 등 양국 대학생들은 교내 신공학관 창업 공간인 '스마트팩토리'에서 건강한 식생활과 세대간 공동 활동 등 스마트 라이프를 주제로 팀별 워크숍을 진행하고 올해 주제에 관한 토론과 연구 등을 진행한다.

지난해 리빙랩 프로젝트에서는 건국대 학생들이 네덜란드 빈데스하임대학을 방문해 '스마트 에이징(Smart Ageing)'을 주제로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생활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양국 대학생들은 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직업군의 수요 창출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고, 네덜란드 국가차원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개별 단위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들의 복지 증진까지 이어지는지 살핀 바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성균관대는 11일부터 26일까지 전세계 160여명의 한국학 전공 학생 등과 함께 2주간 합숙하는 한국학 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성균관대학교

## 오세정 서울대 총장 취임... "교육 경쟁할 것"

서울대 오세정 총장(66·사진)이 취임해 6개월여 서울대 총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 됐다. 오 총장은 공식 임명절차를 거쳐 지난 1일 4년 임기 총장 업무를 시작했으며, 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총장 업무에 돌입했다.

오 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대학의 혁신과 공공성 강화, 지성의 회복, 한국 사회와 인류의 당면과제 해결, 미래지향적 교육,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연구문화 조성 등 서울대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학문의 경계를 넘는 유연한 교육과 우수 인재 선발보다는 잘 가르치는 교육 경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오 총장은 "정해진 답을 오차 없이 받아쓰는 모방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 꽃피는 독창성과 사유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우리 대학이 길러내는 인재는 주어진 문제를 푸는 능력보다 새로운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학문의 벽에 갇혀 있기 보다는 그 경계를 넘나드는 유연함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지난 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총장 업무에 돌입했다. /서울대학교

또 "단지 경쟁에 뛰어난 준비된 인재들을 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회 곳곳으로부터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해 그 잠재력을 꽃피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1975년) 후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박사학위(1982년)를 받았다. 1984년부터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2016년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이 됐으나 지난해 10월 서울대 총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한용수 기자

##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 韓-헝가리 문화교류 공로 헝가리십자공로훈장 수여

장충식 학교법인 단국대 이사장(사진)이 올해 한국-헝가리 수교 30주년(1989~2019)을 맞아 헝가리 정부로부터 양국간 대학교육과 문화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헝가리십자공로훈장'을 받는다.

장 이사장은 총장 재임시절인 198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공과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국립엘레대학, 세멜바이스과의대학, 페이츠대학과 연이어 교류협력을 확대해왔다.

장 이사장은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증진을 위해 단국대 교수를 파견하고 학생 교환, 현지 한국학강좌를 지원하는 등 학술교류를 꾸준히 지원해왔다. /한용수 기자



## "존경받는 세계 100대 대학 만들 것"

동국대 신임총장에 윤성이 교수

동국대 신임 총장에 윤성이(55·사진) 교수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자랑스님)는 지난 8일 오후 2시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제317회 이사회를 열고, 윤 교수를 이사 전체 만장일치로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총장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윤 신임 총장은 1990년 동국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일본 쓰쿠바 대학에서 환경과학연구 석사학위를, 1998년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지구시스템 공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0년도부터 동국대 식품산업 관리학과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미래인재개발원장,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일반대학원장 등 학내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미래인재개발원장 재임시절엔 국내 최초의 학생 역량 강화 시스템인 '드림패스'를 도입 대학이 재학생의 전주기를 관리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학생 관리의 편의성



과 질 향상으로 취업률 향상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학교 밖에서는 논립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2011~2013), 로컬푸드운동본부 공동대표(2011~2013), 한국사찰림연구소 소장(2016~2017)을 역임했다. 논문으로는 '농업부문 융복합 시설사업 모델 예비 타당성 평가지표요인 도출과 우선 순위 분석', '바이오매스 순환단지 사업화 모델 연구' 등 39편이 있으며, 자랑스런 동국불자상, 동국우수연구자상을 수상했다.

부 공동대표(2011~2013), 한국사찰림연구소 소장(2016~2017)을 역임했다. 논문으로는 '농업부문 융복합 시설사업 모델 예비 타당성 평가지표요인 도출과 우선 순위 분석', '바이오매스 순환단지 사업화 모델 연구' 등 39편이 있으며, 자랑스런 동국불자상, 동국우수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윤 신임 총장은 "'에너지이즈 동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동국대가 '공헌으로 존경받는 세계 100대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역동적인 변화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구성원들이 존중과 소통, 참여를 통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 국민대통합 위한 국립묘지 돼야



문형철

국방기자 칼럼

훈혁신위원회는 현충원만을 국립묘지로 생각해 온 것은 아닐까? 묘비가 가지런히 늘어선 장엄한 모습과 의장대의 의전만이 국립묘지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4·19민주묘지, 3·15민주묘지는 2020년 만장이 될 예정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민간인사의 마지막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고민해 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국립묘지의 역사가 긴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혁명 이후인 1791년부터 판테옹이라는 석조건물에 프랑스 혁명 이후사망한 위인들을 모시고 있다. 프랑스는 군사적 업적이 있는 위인들에 대해서는앵발리드라는 별도의 석조건물에서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서울현충원은 국방부가, 대전현충원은 보훈처가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방부와 제대군인가군관련 국립묘지를 관리하고 내무부 산하기관이 민간관련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국방부와 보훈처가 각각 분리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 하다.

이와 함께 정권교체에도 흔들림 없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호국보훈의 원칙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진보 진영은 친일파와 군사쿠테타 공신들을 국립묘지에서 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수 진영은 친북 또는 북한 부역자의 유골사헌반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의 1·2차대전의 전쟁영웅이라 하더라도, 나치부역자와 나치에 저항했지만, 파리를 화마로 몰아갈 뻔 했던 공산주의자의 안장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여담이지만, 미국의 경우 프랑스 페레네타르드누아에 2차대전 당시 범죄 등 불명예 행위를 범한 미군을 묻은 '플랫'이라고 불리는 '불명예 묘지'를 조성한 바 있다. 보훈혁신을 위한 국립묘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국민 모두가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captinn@

최근 보훈혁신회가 "국가공권력 희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군복무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한 규정은 폐지한다"는 권고안을 내자 보훈단체를 비롯한 군안팎에서 거센 항의가 일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활동이 끝난 보훈혁신회의 권고안일뿐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바 없다는 입장을 지난 7일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일선 군인들은 보훈처에 대한 불신감은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명예를 중시하는 군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최고 명예라 생각하는 '국립묘지'를 함부로 언급하는 것은 분명 가슴깊게 상처받을 일이다. 한 예비역 장교는 군인 중심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문제점을 털어놓았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민간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군인들은 국가가 우리를 기억해 준다는 믿음 하나로 열악한 조건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 프랑스의 판테옹, 국립묘지는 아니지만 국립묘지의 위상을 가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자국민에게 추앙받는 민간인을 안장한 사례가 많다.

우리는 오랫동안 판에 박힌 틀 속에서 국립묘지를 생각해 왔다. 보훈혁신회의 권고안도 따지고 보면 혁신이 아닌 틀 속에서 몸부림 친 수준이라고 보여진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립묘지는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4·19민주묘지, 3·15민주묘지, 5·18민주묘지, 영천호국원, 임실호국원, 이천호국원, 산청호국원 등 9곳이다.